Japan Weekly Digest

2010. 4. 19 ~ 4. 25

- □ 금주의 이슈
 - 한중FTA 추진보도에 대한 일본의 반응
 - 마스조에 前후생노동장관 신당 창당
 - 도요타, 기업랭킹 3위에서 360위로
 - · 산요전기, 리튬전지 EV 최장기록 달성
- □ 일본 정재계 소식
 - 하토야마 정권, "후텐마문제 등으로"위험 수위
 - 日정부, 재정건전화 대책안 발표
 - 한중일 외무장관회의, 다음달 15일 경주에서 개최
-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 - 에너지기본계획 발표
 - 경산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개혁안 발표
 - 바이오의약 민관 연구개발 지원책 발표
-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 - 한중일 30인회의 개최 결과, 일본 나라시 (4월18~19일)



- ※ 자료제공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- 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je.or.kr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Tel.02-3014-9888)

□ 일본 정재계 소식 -

ㅇ 한중FTA 추진보도에 대한 일본의 반응

-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15일,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체 결을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고 표명
- · 일본은 이 보도와 관련, 1) 경쟁상대인 대만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 해 한국이 경계를 강화, 2)중국과의 FTA를 적 극적으로 진행시킴으로서 미국에 대해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고 있다고 해석
- · 나오시마 경산상은 18일 열린 한중일 30인회의 인사말을 통해 "한중일 경제연대 강화를 위해 세 나라 간 FTA를 진행시켜야 한다"고 강조

ㅇ 마스조에 前후생노동장관, 신당 창당

- 일본정계에서 인기 정치인인 마스조에 요이치 참의원(前 후생노동장관)이 21일 자민당을 탈 당. 신당 창당을 발표했음
- · 마스조에 의원은 타니가키 총재 등 현재의 자 민당 집행부로는 희망이 없다면서 지도부의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여 당내 마찰이 있었음
 - * 자민당 야노 前참의원 등 6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짐

ㅇ 도요타. 세계우량기업 랭킹 3위에서 360위로

- 美경제지 포브스가 21일 발표한 "세계우량기 업" 랭킹에서 도요타자동차는 작년 3위에서 360위로 급락
- · 이번 리콜 사태로 실적이나 주가 그리고 기업 의 신뢰성 변수가 떨어진 것이 그 원인
- · 일본기업은 NTT가 41위로 최고. 100위 이내는 미쯔비시상사(78위), 혼다(86위) 등 3개회사만 선정. 한국기업은 삼성전자가 55위를 기록 * 21일, 무디스는 도요타 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한 단계 하향

산요전기, 리튬전지 전기자동차(EV) 최장기록 달성

- 산요전기는 21일,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한 전 기자동차가 도쿄-오사카(556km) 구간을 충전 없이 주행하여 최장기록을 달성했다고 발표
- · 이번 주행성공은 리튬전지부문 최장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록
- · 산요전기에 의하면 이 실험에 사용한 전지는 전기자동차(EV)용이 아닌 노트PC에 사용되는 타입으로 성공했다고 발표

ㅇ 하토야마 정권, "후텐마 문제 등으로" 위험 수위

- 하토야마 총리는 미군 후텐마기지 이전과 매 니페스토 위반 등의 문제로 인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0%대까지 하락하고 있어 7월 참의 원 선거를 앞두고 위험수위에까지 도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
-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표명했으나,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일본국민들의 불안을 조장
- ·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아사히신문, 시사통신 등의 조사에 의하면 20%대를 기록 하고 있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속출

ㅇ 日정부, 재정건전화 대책안 발표

-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안을 21일 제출, 6월까지 재정건전화 대책을 확정시킬 예정이라고 발표
- ·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(PB)를 건전화 시키는 목표와 재정적자 대비 국내총생산 (GDP)의 비율을 개선하는 2개안을 발표
- A안은 2015년에 적자폭을 약 50% 줄이고,
 20년에 흑자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고 B안은
 재정적자를 GDP대비 15년에 6%, 20년에 3%
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

〈표〉재정 건전화 목표안(▲는 적자)

2010년 추계	2015년도	2020년도
A안 (기초적 재정수지 개선)		
▲33.5조엔	▲16.8조엔	흑자 전환
B안 (재정적자 GDP비율)		
9.4% (▲44.8조엔)	6%정도	3% 이하 (▲14.3조엔)

한중일 외무장관회의, 다음달 15일 경주에서 개최

- 한국, 중국, 일본의 3개국 외무장관이 5월 15~16일에 경주(慶州)에서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
- ·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개국의 제재, 무역 투자를 위한 협력강화, 한중일FTA 추진 등의 의제들이 논의될 전망
 - *한중일 외무장관회의는 '09.9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
- · 5월 29~30일에는 제주(濟州)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 예정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-

ㅇ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19일,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「에너지 기본계획」을 발표
- · 국내소비가 차지하는 국산에너지 비율을 나타 내는「에너지 자급률」을 현재 약 20%에서 40%로 확대시킨다는 방침
- ·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신설이나 태양광발 전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대량으로 도입함으로 서 자급률을 올리겠다는 것이 목적
 - * 3년마다 발표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자급률 향상을 위해 목표수치가 제시되는 것은 처음

ㅇ 경산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개혁안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19일, 경산성이 관할하는 11개 독립행정법인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개혁안을 발표
- · 신에너지·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(NEDO) 등이 운용하는 기금 일부를 폐지하고, 최대 250억 엔을 국고에 반납시키는 등 전체사업비의 약 40%에 해당하는 2,000억 엔을 재검토
- · 행정쇄신회의가 23일 실시하는 사업조정에 앞 서 검토한 것이지만 경산성은 그 결과에 관계 없이 개혁안을 실행할 예정

ㅇ 바이오의약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20일, 바이오 기술을 사용한 「바이오의약품」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
- ·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지만 신약개발에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0 억 엔을 민관이 협력해서 출자하고「바이오의 약품개발 지원회사」를 금년 내에 설립, 연구 개발을 지원
 - * 지원회사는 중소기업의 R&D수탁연구나 대학과 의 공동 기초개발도 실시 예정
- · 지원대상은「핵산의약」이라고 하는 바이오의 약품이고 암이나 HIV에이즈 등에 유효

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-

'한중일 30인 회의'결과(요약) 일본 나라시(4월 18~19일)

- 한·중·일 3국의 지식인들이 모여 국제사회와 연계에 대해 논의하는 제5회「한·중·일 30인 회의」가 4월 18~19일,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
- 주요 논의 내용

ㅇ 금융, 재정, 경제통합분야

- 아시아경제통합을 위한 3국 공동사무국 설립
- 한중일FTA 조기체결을 위한 연구를 가속
- 미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기구 창설
-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, 동아시아 외화보 유액의 일부를 공동운용
- 아시아 역내 인프라 정비 기금 창설
- 환경,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3개국 공통의 공업 규격 제정
- 지역에서 자원을 공동 비축, 융통하는 협력체제 구축
- 아시아채권시장의 구체적인 실효목표를 설정

ㅇ 환경, 에너지분야

- 환경대책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키는 전략으로 정부
 간 정책협조
-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에서 3개국이 제휴
-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3개국이 기술협력, 이전을 촉진
- 3개국 대학, 연구소, 기업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적 그린에너지 개발안건의 지원기금을 창설
- 환경, 고령화 등 제반문제 해결을 목표로 '플래티 넘 사회'구상 공동네트워크 구축
- 차세대 원자로 관련, 전문가의 교육, 육성에서 공 동프로그램 마련
- 에너지절약, 내수와 관광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3 개국에서 서머타임을 공동 도입
-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축전지의 안전성평가와 충전프라그, 충전방법의 규격을 표준화
- 온난화가스배출량의 산정, 검증 등 '한중일 탄소시 장협의회'를 설립
- 황사대책 협력을 촉진
- 수자원의 고갈 대책 국제협력

ㅇ 문화, 교육, 민간교류 분야

- 3개국에서 수강을 의무화하는 공통 단위제의 '동아 시아 경영대학원' 설립
- 민족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, 오보 등을 시정하기 위해 3개국이 공동운영하는 사이트 개설
- 3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수한자 500자를 선 정해서 교육
- 동양의 정신강좌 등을 공동으로 주최
- 3개국이 순회하면서 문화박람회를 개최

【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】

□ 『재정적자의 심각도』 미쯔호 종합연구소, 4월 17일

- 2025년 일본의 국채발행 잔액은 1,500조 엔이 될 전망. 이대로 국가운영을 유지한다면, 언젠가 국채소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. 경제가 高성장을 유지한다 해도 재정건전화는 필요하고, 매니페스토의 재검토를 포함한 전체적 논의가 필요

http://www.mizuho-ri.co.jp/research/economics/pdf/japan-insight/NKI100416.pdf (출처)

□ 『성장전략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인재 포트폴리 오』 노무라 경제연구소, 4월20일

- 저출산/고령화, 국내시장의 축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면, 일본은 글로벌 인재의 육성·조달이 중요. 단기적으로는 외국국적의 고도인재고용촉진, 장기적으로는 젊은 층의 글로벌 체험 기회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함

http://www.nri.co.jp/opinion/region/2010/pdf/ck20100401. pdf (출처)

□ 『전기를 맞이한 산업정책』경제산업연구소, 4 월21일

-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움츠러든 일본경제 의 혈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원배분을 낡은 산업으로부터 신산업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 는 것임.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에 연결되는 공급 측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수요환 기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

http://www.rieti.go.jp/jp/columns/a01_0283.html (출처)

【금주의 일정】

일자	주 요 일 정	
4/19(월)	○ 제5회 한중일 30인회의 개최 (일본 나라시) ○ 3월 소비자동행조사 발표(내각부) ○ 3월 백화점 매출 발표(일본백화점협회)	
4/20(화)	○ 행정쇄신회의 개최	
4/21(수)	○ 하토야마 총리, 자민당 당수와 토론 ○ 일본무역협회 회장 기자회견	
4/22(목)	○ 3월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 ○ 시라카와 일본은행총재 강연(뉴욕)	
4/23(금)	○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 개 최 (미국) ○ 2월 산업활동지수 발표(경산성)	

【파트너를 찾습니다】

선박(어선)용 엔진절감장치 판매대리점 모집

- 의뢰기업명 : S기업(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)
- 일본 S기업(상사)에서 어선용 연료절감장치 (메이커:니혼테크노)를 한국내에서 선주(船 主)를 대상으로 판매해줄 대리점을 찾고 있 습니다.

초소형 프레이즈반(밀링머신) 판매 / 부품조달

- 의뢰기업명 : 에노모토 공업
- 일본의 에노모토 공업으로부터 초소형 프레 이즈반 한국 판매 및 해당 부품의 (한국으 로부터의) 조달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다.

스텐레스단조 부품(반도체제조장치용 밸브) 조달

- 의뢰기업명 : U공업 (기업명 추후 공개)
- 일본에서 한국의 스텐레스단조메이커를 찾 고 있습니다.
- □ 용도 : 반도체제조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부품 □ 향후일정 : 추후 도면제공, 공장견학 예정

특허리포트 판매 희망

- 의뢰기업명 : 네오테크놀러지
- 일본기업 네오테크놀러지(www.neotechnology.co.jp) 에서 한국 출판사 또는 기업(전자분야)을 대상으로 특허 리포트 판매를 희망하고 있 습니다.

다중접합기술, DB기술 제공 희망

- 의뢰기업명 : S기업(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)
- 일본의 S기업으로부터 '다중복합기술'과 'DB기술'을 제공(판매)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.

약 카렌다(약 포지/약 비닐포장) 주문생산

- 의뢰기업명 : (주)메디콘 서포트
- 약 카렌다(약포지) 조달의뢰가 있습니다.

새로운 한일 파트너실을 향하여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^및

